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경제전반, 중국】 중국의 '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8%, 연간 목표치인 '5.5% 내외' 밑돌아

【금융, 중국】 중국인민은행, 4월 25일부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0.25%p 인하

【코로나·봉쇄, 중국】 상하이시, 666개 중점 기업의 조업 재개 우선 지원 방침 발표

【코로나·봉쇄, 중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주요 지역 봉쇄 확산에 대비하여 진출기업·공급망 점검

【경제전망, 세계】 IMF와 WB 모두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반도체, 일본】 일본, 반도체 제조용 희소가스의 국내 생산 지원

【리쇼어링, 미국】 미국수출입은행(EXIM) 이사회, 리쇼어링 지원 정책 승인

【원유·제재, 일본·러시아】 일본 기업,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지 움직임

【금융·환율, 일본】 달러당 엔화 가치 20년만에 최저 수준 기록



GVC 뉴스 더하기

- ①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흔들리는 자동차 공급망
- ②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전보장 법안' 추진 동향 및 시사점



GVC 기초상식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GVC 돌보기

- ①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 공급망'
- ② 원자재 시리즈 2편 - '에너지 원자재'
- ③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GVC 전문가

토도 야스유키(일본 와세다대 교수) - '경제안보 관점의 과도한 국내 회귀로 악화되는 공급망'



GVC 소식통

- ① 러-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③ 러-우 사태 관련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안내



더 찾아보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지는 마-중 코발트 전쟁 (2248 한국일보 '김연규 한양대 교수 오피니언 요약')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경제전반, 중국】 중국의 '22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4.8%, 연간 목표치인 '5.5% 내외' 밑돌아

- '22년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4.8%로서 연간 목표치인 5.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1차·2차·3차 산업별 성장률은 각각 6.0%, 5.8%, 4.0%를 기록. 3차 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것이 눈에 띈다
- 특히, 금년 3월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3.5% 대폭 감소하여 '20.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22.1~2월 6.7% 상승에 비해서도 대폭 악화). 3월 자동차 판매량도 전년동기대비 11.7% 감소, 굴삭기 판매량도 64% 급감하는 등 3월 중순 이후의 중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22년 1분기 중국의 수출은 15.8% 증가한 8,209억 달러, 수입은 9.6% 증가한 6,57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특히, 3월 수출액은 해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14.7% 증가했으나, 수입액은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봉쇄 조치가 '22년 2분기 수출입 수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제조업 생산은 6.2% 증가하는 등 하이테크 제품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도 15.6% 증가하고, 인프라 투자도 8.5% 증가함
- 중국 정부가 금년 경제성장 목표치로 제시한 5.5%의 달성이 필요하지만,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의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출처 : 언론보도 등 종합

● 【금융, 중국】 중국인민은행, 4월 25일부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0.25%p 인하

- 4.18일 중국인민은행은 4.2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25%p 인하하기로 결정
 - 금번 지급준비율 인하로 시중에 공급되는 장기 유동성 자금은 5,3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각각 0.5%p씩 인하한 바 있음
- 금번 지급준비율 인하는 ① 금융기관 자금상황 개선 및 안정적 자금 조달, ②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③ 금융기관의 연간 65억 위안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인하 후 중국 금융기관의 가중평균 지급준비율은 8.1%로 집계됨
 - 중국인민은행은 영세상인 및 삼농(三农 :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성(省) 별로 운영되는 중소 은행인 도시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0.25%p 더 낮추기로 함

출처 :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SINA

● 【코로나·봉쇄, 중국】 상하이시, 666개 중점 기업의 조업 재개 우선 지원 방침 발표

-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가 4.16일 '상하이시 공업기업 조업 재개 방역 가이드라인(제1판)'을 발표했다고 상하이증권보 등 현지 언론이 4.18일 보도함. 동 문건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동차, 장비, 바이오의약품 등 중점 산업 '화이트리스트 666개 기업'의 조업 재개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힘
 - 666개 기업 중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이 251개(37.7%), 의약품·의료 184개(27.6%), 반도체·직접회로 83개(12.5%), 에너지·화학 66개(10%), 식품·가공 17개, 항공우주 9개 등이 포함
- 중점 기업 조업 재개 명단에는 시노펙, 바오산철강, 미쓰비시화학, 바스프, BYD, 상하이GM, 상하이폭스바겐, 상하이전기, 상하이기계제조, SMIC, 3M, 왕왕식품 등 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
-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주요 생산시설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되, 생산과정의 폐쇄식 관리, 종업원 방역 관리 전면 강화, 원자재 물류난 해소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함. 다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당장 조업 착수가 가능한 기업은 제한적이며, 다소 시일이 걸려서 순차적으로 조업 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상하이시는 중국 GDP의 3.8%, 중국 전체 수출의 6%를 차지하는 상주인구 2,500만명의 1선 도시이자,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4,700만 TEU)인 만큼, 코로나 확산 및 도시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 (일본경제신문)

출처 : 上海證券報, 證券時報, 일본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등

● 【코로나·봉쇄, 중국】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주요지역 봉쇄 확산에 대비하여 진출기업·공급망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는 4.19일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함
-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상하이에서 발생 중인 상황(지난주 총 확진자의 95%가 상하이에 집중)이며, 상하이시는 등급별 봉쇄 조치를 시행 중
 - 전체 시민 PCR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제구역, 관리통제구역, 방어구역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봉쇄를 차별화
- 주원석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은 상하이 항만·공항의 물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며, 최근 상하이시가 반도체·자동차 등 중점 업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역과 물류 상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생산 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평가함
- 홍창표 코트라 중국 지역본부장은 상하이 인근 장쑤성·저장성 등 지역에 반도체·배터리·석유화학 등 한국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동 지역으로 봉쇄 조치가 확대된다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우려함. 현재 코트라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경감을 위해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의 긴급 화물 보관 및 운송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임
 - 업체당 내륙 운송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상세내용 '인사이트' 이번호 'GVC 소식통 ②' 참고)
-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중국 내 상무관·유관기관들이 현지 우리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과 함께 최일선에서 위기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2.4.19) 등

● 【경제전망, 세계】 IMF와 WB 모두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국제통화기금(IMF)은 4.1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개월만에 4.4%에서 3.6%로 하향 조정함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당초 3.0%에서 2.5%로 0.5%p 낮아졌으며, 미국 3.7%(0.3%p ↓), 중국 4.4%(0.4%p ↓), 일본 2.4%(0.9%p ↓), 유로존 2.8%(1.1%p ↓)로 낮아짐
 - 러시아의 경우 금년 1월 전망에서 2.8%였으나 금번 전망에서는 -8.5%로 11.3%p나 하향 조정됨
- 세계은행(WB)도 4.18일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으며, 향후 15개월간 1,7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임. 또한 우크라이나에 1.5억 달러(약 1,850억 원)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
 -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 상승 및 공급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함
 -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지원 프로그램 규모(1,570억 달러)를 상회
 - 프로그램 중 500억 달러는 3개월 내에 집행될 예정

출처 : CNBC, 뉴시스

● 【반도체, 일본】 일본, 반도체 제조용 희소가스의 국내 생산 지원

- 4.1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검토회의'에서 반도체 생산에 불가결한 네온·크립톤 등 희소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생산 지원 등 대응을 연내에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힘
 - 경제산업성은 '22.3월 말 러-우 사태 영향으로 공급망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희소가스를 포함한 중요 물자 7개 품목*'을 지정하고, 이들 물자를 일본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정리
 - * 7개 품목 : 석유, 발전용 석탄(일반탄), 제철용 석탄(원료탄), LNG, 합금철, 희소가스, 팔라듐 등

- 일본정부는 △희소가스의 제조설비 및 재이용설비의 도입 지원,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의 지원, △미국 등 동맹국과 희소가스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제조용 희소가스의 국내생산 지원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방침 (일본은 희소가스 수입량의 6%를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의존 중)

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KOTRA 일본지역본부 등 종합

● 【리쇼어링, 미국】 미국수출입은행(EXIM) 이사회, 리쇼어링 지원 정책 승인

- 4.14일 美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새로운 국내 제조시설 건설 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동 정책은 수출시장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미국 내 공급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미국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우회 지원할 전망
- 반도체, 생명공학·생물의학제품,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 투자를 강화할 전망이며, 자금 조달·대출 보증 정책은 1,350억 달러 규모로 고안
- 팻 투미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최고 의원은 동 정책이 수출입은행 현장을 왜곡할 것으로 비판했으며, 세금을 통한 국내 자금 조달 지원 대신 공평한 기업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

출처 : KOTRA 워싱턴무역관, 폴리티코(4.14)

● 【원유·제재, 일본·러시아】 일본 기업,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지 움직임

- 일본 기업들은 '22.4월 이후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지하고 중동산 원유 등 대체조달을 본격화할 방침
 - 일본은 원유의 약 90%를 중동에서 조달, 정부부처 내에서는 '러시아는 원유 조달처 다양화를 위해 중요한 수입처'라고도 언급하기도 했으나, 러시아산 원유 조달 지속 시 기업 이미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 존재
- 또한 현재 서방 국가들이 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진행 중인 바, 원유 대금의 정상적 결제가 향후에도 가능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러시아가 동 경제 제재에 대한 대항조치로 원유 공급을 갑작스럽게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각 기업들은 러시아와의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기타 국가에서 대체조달을 시작할 예정
 - (ENEOS) 러시아와 체결한 계약 불갱신 및 중동으로 조달 전환, (이데미쓰(出光)흥산) 신규 계약은 보류 예정
- 한편 일본은 러시아 극동에서의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인 사할린-1·2 프로젝트 및 북극권에서의 LNG 개발사업인 북극-LNG2 프로젝트에서는 철수하지 않을 방침
 -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상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언급하며, 'G7에서도 지속 가능한 원유 대체 공급 확보를 위해 시간을 제공하기로 한 만큼,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4.1)

출처 : 주일한국대사관, KOTRA 일본지역본부 등 종합

● 【금융, 일본】 달러당 엔화 가치 20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

- 4.19일 일본 엔화의 가치가 달러당 128엔대까지 하락해 '02.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기록
-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엔저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최근에는 엔저에 베풀하는 투기적 수요까지 몰리고 있음
 - 미국의 장기금리가 '18.12월 이후 최고치인 2.8%까지 상승한 반면,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지속적으로 억제중
- 급기야 4.18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와 스즈키 재무상이 동시에 '급격한 엔저'를 언급하며 구두개입했지만, 시장은 주춤하다 곧 다시 하락세로 전환됨
- 일본이 금융완화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시장이 전망하는 이유는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다른 나라만큼 높지 않다는 점, △일본 정부의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등임.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전망도 엔화 가치의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임. 일본은 해외자산으로 인한 자본수지 흑자 덕에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왔지만,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무역적자 폭이 커지면서 올해 1, 2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바 있음

출처 : 한국일보(22.4.20),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 일본경제신문



GVC 뉴스 더하기 ① :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 흔들리는 자동차 공급망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됨에 따라,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이며 자동차용 배터리 기업이 다수 위치한 중국의 자동차 공급망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함. 중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고자 함

●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 동향

- '21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2,608만대, 판매량은 2,628만대로 각각 전년대비 3.4%, 3.8% 증가했으나, '22년 코로나19가 중국 자동차 주요 생산거점에서 발생하며, 생산·판매 모두 하방 압력에 직면
- 중국 완성차 제조산업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생산량 기준 ①광둥성(338만대), ②상하이(283), ③지린성(242), ④후베이성(207), ⑤충칭(201)**이 상위 1~5위를 차지
 - 3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세로 큰 영향을 받은 상하이는 '22년 1~2월 기준으로 중국내 생산 비중 11.4%(2위)
- '22.3월 자동차 도매 판매량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11.7%로서, '22.1~2월까지의 판매량 증가율이었던 7.5%를 대폭 하락시켜, 결국 '22.1~3월 누계 판매 증가율은 0.2%로 내려앉음
 - '22.3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국제 정세 불안 및 차량용 배터리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당수 생산기업이 판매가를 인상 → 최종 소비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중국자동차협회)

● 최근 중국 차량용 배터리 주요기업 동향

〈 중국 이차전지 주요 생산기업 〉

- 차량용 배터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 CATL(세계시장 점유 32%)과 3위 BYD는 중국 기업으로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조업 중단 우려

세계 순위	기업명	본사 소재지	유형	이차전지매출 (20년 억위안)	'21년생산 capa(GWh)
1	CATL	푸젠성	각형, 파우치형	413.7	145
3	BYD	광둥성	각형	120.9	75

(출처: 기업별 홈페이지 등)

- 4.9일 CATL 본사 소재지인 푸젠성 닝더시 확진자 발생으로 봉쇄식 관리통제가 실시, 협력사에 따르면 납품 오더는 중단되지 않은 상황. 관계자 역시 방역 상황이 엄중하나 생산을 위한 회사 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닝더 이외 6개 지역 생산기지에서의 분담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
 - 4.17일 푸젠성 신규확진 0명, 점대점 봉쇄식 관리 중으로 물류 및 주요기업 조업 재개 추세

● 향후 전망

- 4.16일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는 '공업기업 조업 재개 방역 가이드라인(제1판)'을 발표, **자동차, 반도체 등 중점 산업 666개 기업의 우선적 조업 재개 발표, 현지 공급망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임**
 - 이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은 약 250개로서 테슬라, 상하이자동차(SAIC), 상하이폭스바겐, 상하이GM 등 현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포함
- 한편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일부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중국 기업들이 조업 중단 및 물류 난항을 겪고 있어 **한국 내 완성차 생산에도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1공장은 중국산 브레이크 시스템 부품 조달 어려움에 따라 기존 2교대를 1교대 근무로 전환했으며,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에어백 부품 조달 어려움에 따라 4.18~20일 가동 중단
 - 중국 지린성의 경우, 주요 진출 기업 4.17일부 조업 재개 승인, 4.18일 일부 직원 출근하여 조업 재개
- **중국이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고수하는 한 주요 산업의 공급망 위기는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바, 상시 동향 모니터링 필요**



GVC 뉴스 더하기 ② :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안전보장법안' 추진 동향 및 시사점

※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경쟁, 탄소중립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각국의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도 '23년 시행을 목표로 '경제안전보장법안'을 준비하여, 최근(4.6일) 중의원(하원 격) 본회의를 통과하여 참의원(상원 격)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임. 상기 법안의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을 검토해보고자 함

● 경제안전보장법안 추진 배경

- 안전보장의 중요성이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되면서, 일본 내 산업기반 강화, 기술 유출 방지, 수출관리 강화, 공급망 복원 등의 대응이 요구되어 옴

〈 경제안전보장법안 입법 추진 일정 〉

(20.4월) 내각부 국가안전보장국 내 경제반 신설 (의료물자 조달 등 코로나 긴급 대응)

(21.10월) 경제안전보장담당 장관직 신설, 고바야시 취임 후 법안 책정 표명

(21.11월) 경제안전보장법제 준비실 신설

(22.2.25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국회 제출

(22.3.1일) 법안 공개 (총7장, 99조)

- ①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제2장), ② 에너지 등 기간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제3장), ③ 첨단기술의 개발지원(제4장), ④ 군사전용(轉用) 가능한 기술의 특허 비공개(제5장)

(22.3.17일) 중의원 심의 중, '23년도부터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추진

* 전략물자 및 기간 인프라 대상 사업자는 추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계획

● 경제안전보장법안의 주요 내용

(1) (공급망 강화)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확보 계획서를 요구하거나 대응조치를 강구

- △계획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조치, △계획서가 공급망 단절 우려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공급망 다각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체 계획서를 요구
 - 해당 사업자는 공급망 확보 계획을 제출, 정부는 인정사업자에 한하여 각종 지원 실시
 - (벌칙) 공급망 계획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2) (인프라 안전 확보) 기간산업 및 인프라 등 중요 설비의 취약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행하고, 기업에 대한 시정 권고 권한을 부여하여 공급망을 강화

- 전기, 금융 등 14개* 지정 분야의 사업자가 중요 설비 도입 시, 설비·부품 개요, 유지·관리의 위탁처 등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 의무화
 - (분야)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자동차 운송, 외항화물, 항공, 공항
 - (벌칙) 기간 인프라 설비에 대한 허위 신청이나 보호지정된 기술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부과

(3) **(첨단기술) AI와 양자 기술 등 민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 및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기능도 부여**

-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활용에 관한 기본지침 책정 및 자금지원, 민관협의회 설치, 싱크탱크를 통한 조사연구위탁 등을 실시
 - 경제안전보장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 기금('21년 추경예산) 내 설치
 - (벌칙) 관계자가 취득한 기밀을 유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4) **(특허 비공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거나 경제 안전보장 관점에서 중요한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비공개하고 이에 따른 보상제도를 마련**

- 특허 비공개는 혁신을 촉진하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핵기술, 고도의 무기기술 중 공개 시 국가안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술이 대상
 - (벌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 주요 쟁점 관련 동향 및 시사점

- 아베 내각 이후 일본정부는 경제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정책, 국내 공급망 강화 대책, 쿼드(QUAD) 공급망 구축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법률 개정이나 분야별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왔음**
 - (중요물자의 공급망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중국 의존 일본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에 주력하였으나, '21년 들어서는 반도체, 첨단 배터리 등을 전략 물자화하는 데 중점
 - *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와 반도체·배터리의 국내생산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공급망 강화
- 기시다 내각의 중요 과제 역시 경제안전보장으로 '21년 11월 **첨단 반도체 기업의 일본 국내투자 지원, 차량용 배터리의 공급망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경제안전보장법안 제정을 추진 중
- 한편 일본 경제계는 '공급망 강화', '인프라 안전확보' 관점에서의 정부의 관여 강화가 경제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계감 표명 →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전문부서를 설치하는 등 빠른 대응**
 - (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관서경제연합회 3개 단체) 법령 세부사항 결정 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고바야시 경제안보담당대신(장관)에게 전달
 - (첨단기술 관련 전기·IT대기업) △후지쯔, NEC, 미쓰비시전기는 경제안보 전문부서를 설치, △히타치제작소 역시 글로벌 리스크 관리 담당 부서 설치 예정
- '19년 7월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같이, **경제안전보장법을 근거로 한 무역통제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
 - 일본 내에서도 경제의 '탈중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도 중국과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는지 주목할 필요
 - 향후 전략물자 및 기간 인프라 대상 사업자가 규정될 예정인 바, **해당 일본 기업들과 거래 중인 우리 기업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GVC 기초 상식 :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 '19.12월 EU가 세계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시나리오를 발표한 이후, 주요국들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음. 그러나 탄소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정책·제도는 역설적으로 물가상승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아래 '그린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자

●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 친환경을 상징하는 '그린(Green)'과 물가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관련 원자재의 가격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권역·국가의 정책, 산업 방향 변화에 따라 최근 나타난 원자재 인플레이션 동향은 아래와 같음 (품목별 가격상승률은 '22.4월 기준)

 천연가스 (전년대비 172%↑)	• 유럽은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일찌감치 풍력발전 비중을 크게 증가시켜 전력원의 16%까지 차지하게 되었으나, '21년 하반기 이상기온으로 발전량 대폭 감소 • 풍력 발전의 대체재로 천연가스가 각광받아 수요가 급증, 전년대비 172% 가격이 급등 • 신재생에너지의 태생적 한계로 나타난 현상
 알루미늄 (전년대비 30.6%↑)	• 태양광 발전, 전기차 및 풍력 발전의 필수재이나, 생산·제련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규제를 받음 • 전 세계 알루미늄 수요의 60%를 대응하고 있는 중국이 '21.9월 전력부족 및 탄소절감을 이유로 생산 공장 가동을 줄여, 공급부족으로 1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
 구리 (전년대비 11.7%↑)	• 태양광·풍력 발전이 기존 전력발전 시설보다 6배 더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하여 수요 다대 • 칠레, 페루가 전 세계 구리 공급의 40%를 차지하는데, 최근 환경 파괴 우려로 규제를 강화, 공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구리 가격이 상승

● 시사점

-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친환경 정책이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오히려 화석 연료 기반의 전통적 발전(發電) 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남
 -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 압박을 받은 유럽 전력 기업들은 천연가스를 발전을 대체하여 탄소배출량이 높은 유류 석탄 발전 시설을 가동
 -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도 급부상 (영국도 4.7일 원전 확대를 모색하는 '에너지 안보 전략' 발표)
- 단기간 내의 친환경 경제구조 전환에 러·우 사태, 중국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 등 공급망 위기 현안이 겹쳐,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 가계 소비여력 악화,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
 - 미국의 '22.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8.5% 상승하여 '80.12월 이후 40년 3개월만의 최고치를 기록
- 그린플레이션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인 전기저장장치(ESS) 개발 및 상업화가 관건, 당분간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가 가교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



GVC 톨보기 ① :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 공급망'

※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함. 이에 최근에는 각종 IT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래에서는 공급망 관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급망'의 구축 사례를 살펴보자

● 공급망 관리의 디지털 혁신 : '스마트 공급망'

- 스마트 공급망은 마케팅→상품개발→제조→유통→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정보·제품·서비스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기존 공급망 모델을 벗어나, **단계간의 경계를 허물고** 공급자(원자재, 부품, 부속품 등)부터 운송자(자재 및 최종제품)까지 **모든 플레이어들이 통합된 생태계로서** 작동하는 공급망
- 스마트 공급망에서는 초연결된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급망 내 정보 흐름이 동시적, 실시간으로 공유·소통** → 신속·유연한 의사결정으로 **제품·서비스의 시장 도달 속도가 높아짐**

기존 공급망 모델	구 분	스마트 공급망
부분적	가시성	전체
각 단계별 이동 시 정보의 지연 발생	소 통	모든 플레이어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
가시성의 제한 → 의미 있는 협력 제한	협 력	공급망 가치 창출 위한 협력 기회 제고
고객수요 정보의 원자재 계획 반영 미흡	유연성	고객 수요의 신속한 반영
사업계획 불일치 → 납기지연, 동기화 미흡	대응도	계획·실행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스마트 공급망 구현 기술

- (IoT) 유무선 네트워크, 센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물류 거점간 반출입, 하역 등 실시간 물류 추적
- (AI) 다양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 → **수요 예측 및 위기 관리**
- (로봇) 재고 관리 및 **물품 운반** 외에도, 소매 매장에서 **고객지원 서비스 로봇**으로도 활용
- (블록체인)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장부 기술인 블록체인이 **안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
- (3D프린팅) 소비지 근처에서 생산함으로써 공급망을 단축·재편하며 **보관·운송 수요 자체를 제거**

● AI를 접목한 스마트 공급망의 대표적인 사례

- ① **삼성전자의 N-ERP** : “AI 및 빅데이터의 분석 기능을 통해 사람이 놓치는 부분을 보완한다”
- 시장예측, 부품구매, 생산, 재고관리, 판매물류까지 기업 활동의 전반을 아우르는 ERP(전사적 자원관리)
- ② **아마존의 예측 배송** :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상품 판매를 예측하여 대응한다”
- 수요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지역 허브로 배송하여 적절한 수의 물류창고의 유지 가능
- ③ **에버스트림(Everstream)** :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에 기계학습 모델을 접목한다”
- 배송기록, 뉴스보고서, 소셜미디어 등 오픈소스 정보와 물류·배송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분석·예측
- ④ **윈드워드(Windward)·플렉스포트(Flexport)** :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길로는 충분하지 않다”
- 선적, 환적, 위성 이미지, 항만 및 컨테이너 등 해양 정보 소스를 전문으로 공급망 동향 및 위험 분석

※ **(대응방안)**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그 관리와 활용이 더 어려워지는 측면 → ① AI 접목을 통해 위험 가능성 인지부터 첫 피해 발생까지의 '발견 리드타임'을 최소화하는 등 사람의 능력을 보완할 필요

- 그렇다고 AI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 ② 현지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팀을 병행 운영하여 AI가 인식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



GVC 돋보기 ② : 원자재 시리즈 2편 - '에너지 원자재'

〈원자재 시리즈 순서〉
(총 5편으로 구성)

7호	원자재 개요
8호	에너지 원자재
9-11호	비철금속, 곡물 등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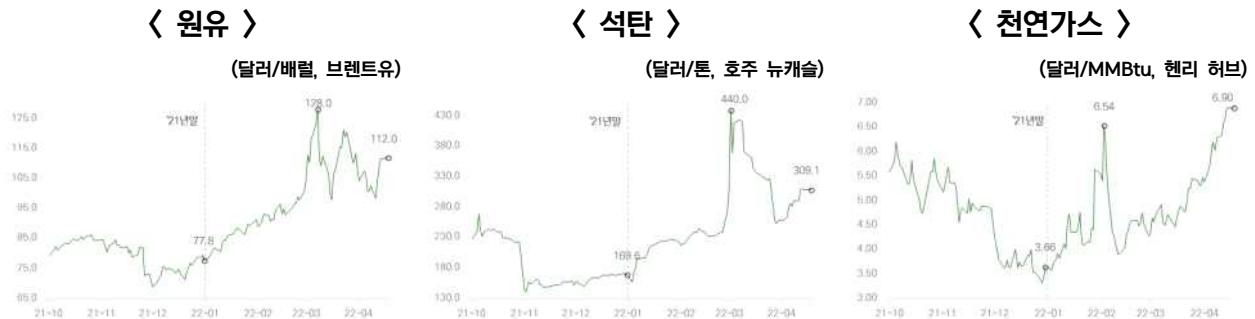
※ 지난 3월 국제유가가 2008년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번 편에서는 3대 에너지 원자재(원유, 석탄, 천연가스)의 최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해외기관의 **가격 전망치**를 소개하고자 함

● 개요

- 3대 에너지 원자재는 원유, 석탄, 천연가스로서, 열에너지 또는 전기에너지로 전환되어 산업, 가정, 수송 등에서 최종적으로 소비
- 특히, 원유는 차량용 휘발유·경유 가격,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요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품목

● 가격 동향

- 원유와 석탄 가격은 러-우 사태를 계기로 급등세를 보인 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21년말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가격은 4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4.18일 기준 6.90달러/MMBtu)



출처 : Bloomberg

● 가격 전망

- 러-우 사태 향방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으나, 하반기 중 가격이 하향 안정된다는 전망이 우세
- (공급 요인) 對러 제재 및 전쟁 장기화시 러시아 원자재 공급 제한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에서 비축유 방출을 발표하는 등 공급 감소 상쇄를 위한 노력 병행
- (수요 요인)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에 따른 봉쇄 조치로 수요는 위축되었으나, 봉쇄 조치 완화 시 수요가 다시 회복될 전망

〈 품목별 가격전망 〉

품목	단위	현재가(4.18일)	'22년 2분기	'22년 3분기	'22년 4분기	'23년
원유	달러/배럴	112.0	117.0	113.0	100.0	87.6
석탄	달러/톤	309.1	244.0	232.5	219.0	198.5
천연가스	달러/MMBtu	6.90	4.35	4.45	4.94	4.20

출처 : 원유 12개, 석탄 2개, 천연가스 9개 해외기관 전망치의 중간값(Bloomberg)

주 : 러-우 사태(2.24일) 이후 전망치만 포함

▶ 다음호(9호)에서 이어집니다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돋보기 ③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22년 3월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는 물론, 철·알루미늄·구리·니켈 등 **철강 및 비철금속** 가격이 '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음. 외부 충격에 대한 자체 대응 체계 마련이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급망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조사를 실시함

● 한국의 원자재 수입 구조 및 특징

- 한국의 원자재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50% 내외 유지 (코로나19로 수입 감소했던 '20년 제외)
- 전체 원자재 수입 중 연료, 광물, 철강·비철금속이 약 70%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체 원자재 분야별 수입 비중)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45%, 철강·비철금속 13.4%, 광물 11% [21년 기준]
 - 에너지 중 원유 수입 비중 70%, 비철금속 중 구리·알루미늄 수입 비중 61%, 광물 중 철광석·비철금속광 수입 비중 73%
- 주요 원자재 중 철광석, 철강재, 비철금속의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철광석) 호주, 브라질 포함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99% [21년 기준]
 - (철강재) 중국, 일본 포함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82.7% [21년 기준]
 - (비철금속) 중국, 인도, 칠레 포함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57.8% [21년 기준]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주요 원자재 수입단가지수는 지속 상승 추세, 우리나라 총 수입단가지수 상승을 견인
 - ('22.1월 재화별 수입단가지수 증가율) 원자재 48.2%, 자본재 -1.3%, 소비재 7.7%

● 원자재 가격 변동이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국제 원자재 가격 10% 상승 시, 국내 제조 중소기업 영업이익의 0.8% 하락

- 원자재 가격 상승이 광물 원자재 수요 비중이 높은 산업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에 미치는 수준이 큰 것으로 추정
- '10년~'19년 기간 에너지보다는 광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중소기업 영업이익 악화에 더 큰 영향
- 특히, 매출 규모가 작은 소기업일수록 원자재 가격 상승에 민감, 영업이익 악화 수준이 높음

● 시사점

- 원자재 가격 상승은 대기업 대비 다각화된 대응이 어려운 **중견중소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직결**
 - 중소 제조기업의 약 85%가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 (중기중앙회)
 - '21.1월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 평균가동률 68%로 전월 대비 9%p 하락, 대기업과의 가동률 차이는 19%p로 전월 13%p 대비 격차가 커진 상황 (가동률 70% 이하의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해가 유발되는 상황, 산업단지공단)
-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원자재 확보와 수익성 방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원자재 비축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야함
- 한편 **중소기업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된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점검**, 정부가 구축한 국가 간 협력 기반 하 수입선 다변화를 도모,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납품 단가 조정 등을 통한 상생 협력** 필요



GVC 전문가 : 토도 야스유키(일본 와세다대 교수)

‘경제안보 관점의 과도한 국내 회귀로 악화되는 공급망’

※ 최근 많은 국가들이 경제안보 및 공급망의 관점에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공장)의 국내 회귀(리쇼어링)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 와세다대 토도 야스유키 교수는 최근 닛케이신문 기고를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 등을 통한 과도한 국내 회귀가 오히려 공급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시각을 소개한 바, 아래 이 주장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다양화를 통한 공급망 강화 위해서는 정책 보완이 필요

- 공급 거점의 국내 회귀가 강해지면 오히려 공급망은 취약, 특히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과 같은 국가는 해외 공급 거점 분산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확인 가능 → 1개국의 국내 공급망이 폐쇄되면, 타국 공급망을 통한 대체 조달이 가능했음
 - 日정부가 중국에서 ASEAN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공급망 강화 관점에서 바람직 → JETRO 등 무역진흥기구를 통한 해외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비즈니스 매칭도 효과적
-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전략 품목 공급망 강화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활용, 생산거점의 국내 유치를 추진 중이나, 이로 인해 일본 국내 반도체 산업이 부흥할지는 의문
 - 과거 일본 지방에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결과, 오히려 low tech 기업 유치가 많았음. 혁신기업에게 보조금은 기술·정보가 모이는 산업 집적지를 떠날 유인이 되지 못함 (오쿠보 토시히로 게이오대 교수 등)
 - TSMC 구마모토 공장 역시 첨단 제품 생산 공장이 아닌 범용 제품 생산 수준
- 특정 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협의의 ‘산업정책’ 효과에도 의문, 급격한 산업 성장은 본질적으로는 민간기업의 경쟁에 의해 달성된 것이기에, 폭넓은 산업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대규모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 산업조차도 국산화율 목표를 크게 밑돌았음 (마루카와 토오무 도쿄대 교수)
 - 산업정책은 산업 내에서 경쟁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유럽경영대학원 필리페 아디온 등)

● 시사점

-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지만, 모든 생산 프로세스를 국내에 완결시킬 필요는 없음. 안전보장 문제가 없는 국가에 공급망을 구축(friend-shoring)하면 장기적·대규모로 공급이 중단될 리스크가 작기 때문
 - 반도체 일부 공정에서 일본 기업은 첨단 기술력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 공급망 내에서 이미 일본은 상당한 영향력 보유
-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과 공급망 강화 관점에서 중요
-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연구개발과 지식 연계 정책 지원이 효과적, 그 이익이 사회에 널리 퍼지기 때문.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강화 대책도 공급망의 국내 유치에 더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큰 방향
 - 일본도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으로 지식 연계 지원 실시. TSMC는 '21년 아바리키현 쓰쿠바시에 연구개발센터 설립 시작,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일본 기업 및 대학과의 제휴의 틀을 마련한 것이 큰 유인
 - 이러한 해외 기업의 연구 개발 거점 유치와 해외 기업과의 공동 연구는 서로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일본 기업의 기술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기회로도 작용
- 결과적으로 폭넓은 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거점 유치와 일본 기업·대학의 해외와의 지식 연계를 지원해 나가야 함. 무엇보다 인도 태평양권 및 일본, 미국, 호주, 인도 쿼드(Quad) 등 안보 우려가 적은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GVC 소식통 ① : 라-우 사태 및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금융제재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 영업점 등(02-6252-3416) 기업은행 · 영업점 등(02-729-7494)		· 0.5 조원 규모 지원 · 0.7 조원 규모 지원
③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 · 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 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2-3460-7428)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타 지역 긴급 운송 또는 대체 바이어 찾는 과정 중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KOTRA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통관, 반품,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즈니스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러시아 변호사의 수출제재 상세내용, 러시아 기업 조회, 계약서 검토 등 지원
⑦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중국지역 긴급 화물 보관 및 내륙운송 지원 특별사업 (KOTRA)

- (사업개요)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운송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KOTRA 공동물류센터에서 화물 보관 및 운송 지원을 통해 물류애로 해소 및 바이어 납기 지연 문제 최소화
- (지원내용) 화물 임시 보관 및 타 지역 긴급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중국 내 물류 이동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신청무역관) 중국 18개 무역관
 - 상하이·칭다오·다롄·선양·홍콩·베이징·난징·정저우·항저우·선전·톈진 등 신청 가능(창춘·하얼빈 제외)
- (참가비) 국고, 기업분담금 매칭 펀드로 100만원~1,000만원 지원
 - 국고지원 비중 : 중소기업(70%), 중견기업(50%), VAT포함
- (모집기간) 2022. 4. 1(금)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30여개사
- (지원기간) 협약시작일 ~ 2022. 11. 30 까지
- (사업 참가절차)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신청 > 사업명 : '물류' 검색 > 해당사업 클릭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본사) → ④ 선정통보 및 참가비 납부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개시
 - 신청 시 참가목적 설명란에 '중국 - 한도총액 〇〇만원' 기재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45, 7430, 7426

●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2022년 4월~12월 동안 유럽向 수출기업의 20DRY·40HC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① 항차별 할당 선복, ② 운임 할인, ③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제공

〈항차 정보〉

노선	출항지	출항일	발차지	발차일	도착지	도착일	서류마감	카고마감	접수마감	지원선복
TSR	부산	5.9일	보스토치니	5.26일	말라세비치	6.21일	5.4일 12시	5.7일	4.22일	30 TEU
		5.18일		6.4일		6.30일	5.13일 12시	5.16일	4.29일	
		5.27일		6.13일		7.9일	5.23일 12시	5.25일	5.13일	

※ 폴란드 말라세비치 이후 추가 내륙운송(철송·육송) 필요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더사는 신청불가
- (신청기간) 항차별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항차별 선착순 배정을 원칙으로 진행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logistics01@kita.or.kr

디지털 플랫폼 이용 및 선적 관련 : LX판토스 「플랫폼 헬프데스크」 ☎ 02-3771-2784 / cs.pantosnow@xpantos.com / www.pantosnow.com



GVC 소식통 ③ : 라-우 사태 관련 사이버위협 예방 및 대응 안내

※ 라-우 사태 이후 사이버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바,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 및 해킹메일 유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정보보안 관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최근 라-우 사태 관련 사이버위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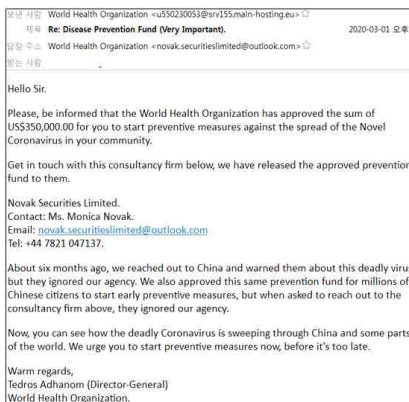
- 물리적 공격 외 사이버戰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DDoS 공격, 계정 탈취, 해킹 피해 등 발생
 - 어나니머스(Anonymous) 등 국제 해킹조직의 러시아 정부, 러시아 소재 진출기업 등에 대한 다수의 사이버 공격 시행 (러시아 영업 지속을 이유로 네슬레社를 해킹하는 등 사이버 공격 위협 등)

〈 어나니머스 최근 라-우 사태 관련 주요 사이버공격 개요 〉

공격수법	시기	활동내용
자료절취	'22.3월	러 에너지社(Rosneft)의 임직원 PC 및 메일 서버를 해킹, 25TB 분량의 내부자료 절취 러시아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절취
	'22.2월	모스크바 핵 안전 연구소에서 데이터 절취
홈페이지 해킹	'22.3월	러시아 소재 웹캠(400)을 해킹, 일반인들에게 라이브 영상 시청법 제공 러시아 언론매체(러시아24 · 채널원 · 모스크바24) 홈페이지를 해킹, 러시아 침공 장면 송출 러시아 기업 · 블로그 · 금융 홈페이지 변조, 악성 메시지 표출
	'22.2월	러시아 국영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악성메시지 표시
	'22.3월	러시아 연방보안국 · 크림 공화국 홈페이지 DDoS
DDoS 공격	'22.3월	벨라루스 은행(사전은행 · 벨인베스크뱅크) DDoS
	'22.2월	체첸 공화국 공식 웹사이트에 DDoS
	'22.2월	러시아 연방 계몽부 웹사이트 DD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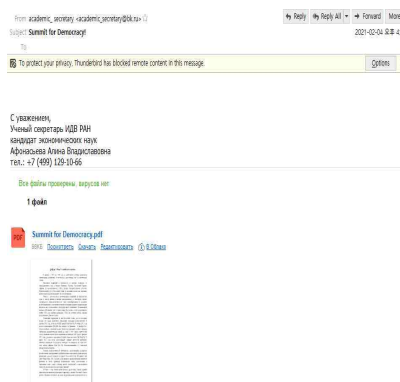
- 벨라루스 해킹단체 고스트라이터(Ghostwritter),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 SNS 계정 해킹 및 행복축구 동영상 게재
 - MS사, 러시아 해킹조직 스트론튬(Strontium)이 우크라이나 언론사 공격에 사용하는 인터넷 도메인 7개 무력화
- 최근 아래와 같은 해킹 메일 수신 케이스가 존재하니, ①메일 열람 전 발신자와 메일주소 확인, ②메일 내 의심스러운 링크 및 첨부파일 클릭 및 다운로드를 삼가고, ③로그인 보안 강화, ④상시 백신 점검 수행 및 ⑤최신 소프트웨어 이용으로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음

〈WHO 사칭 해킹메일〉



최초 악성기능이 없는 메일 발송 → 유사 메일 지속 발송 → 신뢰감 조성 → 실제 악성파일이 은닉된 해킹메일 발송 → 첨부파일 열람 유도

〈러 주재 직원이 수신한 해킹메일〉



하단 첨부파일 클릭 시 ID/PW 입력유도 사이트 자동 접속

〈해외 은행 사칭 해킹메일〉



해외은행 담당자 명의로 발송, 하단 첨부파일 클릭 시 ID/PW 입력유도 사이트로 자동 접속



더 알아보기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지는 미·중 코발트 전쟁

(‘22.4.8 한국일보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오피니언’ 요약)

※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로 꼽히는 코발트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국제 에너지 분야 전문가인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연규 교수**가 최근(‘22.4.8 한국일보) DR콩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코발트 전쟁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게재한 바, 아래 소개함

●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코발트를 둘러싼 역사 전개

1930 ~ 40년대	- DR콩고에는 고순도의 코발트, 구리 등이 대량 매장 → 강대국들이 큰 관심 1939년 아인슈타인은 美루스벨트 대통령에게 DR콩고 우라늄 확보 요청 서한 송부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에는 DR콩고산 우라늄 사용
1970년대	- 강대국들은 DR콩고의 코발트, 구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구애 - 美 닉슨 대통령은 당시 DR콩고 지도자 모부투를 백악관에 초대 1974년 DR콩고 수도에서 무하마드알리 vs 조지포먼 간 세기의 복싱 해비급 타이틀전 개최
1990년대	DR콩고의 대규모 내란과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관심이 사라짐
2008년	- 중국이 DR콩고의 자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 → 미·중의 코발트 경쟁 시작 - 중국은 DR콩고에 도로 2,000마일, 병원 31개, 대학 2개, 5,000개의 정부 주택 건설 - DR콩고 주재 미국 대사관은 상기 내용을 미국 국무부 본부로 긴급 전문 발신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과 본격적인 중국 전기차 확산에 발맞추어 중국은 DR콩고 내 코발트 및 구리 광산 확보 확대
2019년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 맥모란社가 경영난으로 DR콩고 내 2개의 코발트 광산을 각각 2016, 2019년도에 중국에 매각 → 중국이 콩고 코발트광산 완전 지배
2022년	新 DR콩고 정부는 계약과정과 부족한 보상 등을 문제삼아 차이나 물리브덴社의 텅게 풍구루메 광산 운영권 박탈 → 미국의 콩고 코발트 개발권 확보 가능성

●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콩고)

※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콩고공화국은 남·북한과 같은 분단국가가 아닌 콩고강의 지명을 본 딴 별개의 국가



- 수도 : 킌샤사
- 인구 : 8,679만 명 ('19, UN)
- 종교 : 카톨릭(50%), 개신교(20%), 김반기스트(10%), 이슬람(10%)
- 언어 : 불어(공용어), 토착어(링갈라, 스와힐리, 키콩고, 쉴루바)
- 기후 : 열대 고온다습, 연평균 25.2도
- 면적 : 한반도의 11배(234.5만 km²)

● 코발트(Co)

- 반응성이 매우 작고 온도에 대한 안정성이 뛰어나 리튬이차전지(전기차배터리), 내연기관 등에 사용되며 석유처럼 다양하게 활용되어 ‘하얀석유’로 불림
- 콩고민주공화국이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52%(1위), 생산량의 70%(1위) 차지



※ (생각해보기) 미·중과 같은 강대국들도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음
→ 자원부국과 맞춤형 원-원 협력모델을 위해 우리가 줄 것(give)과 받을 것(take)은 무엇일까?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만·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지역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망 현안 점검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언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4. 20. 수)

[환율]

	'20.12.31	'21.12.31	'22.3.31	'22.4.15	'22.4.18	'22.4.19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212.10	1,229.60	1,234.40	1,236.90	0.20	4.05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222.60	1,225.20	1,234.30	1,236.80	0.20	3.93
₩/CNY	166.04	186.51	192.57	194.47	193.66	193.94	0.14	3.98
₩/Y100	1,051.19	1,032.48	995.48	971.32	974.81	964.90	△1.02	△6.55
Y/U\$	103.34	115.14	121.76	126.59	126.63	128.19	1.23	11.33
U\$/EUR	1.2279	1.1318	1.1165	1.0804	1.0793	1.0777	△0.15	△4.78
CNY/U\$	6.5305	6.3681	6.3455	6.3695	6.3729	6.3733	0.01	0.08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4.18 (전일)	'22.4.19			
						전일(2.28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8.11	108.69	0.5	117.2	40.9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53.85	149.85	△2.6	71.7	24.1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10,277.00	10,381.00	1.0	33.9	7.1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3,237.50	3,312.00	2.3	69.7	18.0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33,250.00	33,700.00	1.4	111.9	61.1

[반도체]

	'20	'21	'22.1	'22.2	'22.3	4.14	4.15	4.18	4월(~1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23	3.42	3.75	3.63	3.63	3.61	3.71
(%, YoY)	△21.9	8.0	14.6	8.0	△11.00	△17.00	△17.10	△17.70	△16.0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35	7.45	8.0	8.1	8.1	8.1	8.0
(%, YoY)	7.0	32.8	30.5	32.8	33.9	35.6	35.2	35.2	33.7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3.25	'22.4.1	'22.4.8	'22.4.15	전주(4.8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434.07	4348.71	4263.66	4228.65	-0.8	-16.2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3.31	'22.4.11	'22.4.12	'22.4.13	'22.4.14	전일(4.13비)	'21년말비
BDI	2217	2358	2031	2035	2068	2137	3.3	-3.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